

處容說話와 處容歌의 研究史

金慶洙*

<국문초록>

이 글은 現在까지 發表된 處容說話 및 處容歌에 對한 論文을 收錄하여 이를 몇 개 項目으로 分類하여 整理하고 사이사이에 필자의 의견을 보탠 것이다. 筆者의 能力의 限界로 말미암아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으나, 약 330 여편의 論文을 검토하고 분야별 주요한 業績을 망라한 것이다. 그 분야는 국어학 민속학 문학 설화 역사 등이다.

원래 文學作品의 解釋이란 다양하기 때문에 筆者들의 完곡한 主張과 견해들을 집어 내는 일도 그리 쉬운 作業은 아니었다.

어쨌든, 우리 民族傳統文化의 가장 要諦라 할 수 있는 新羅의 處容歌는 處容自體가 승려이든, 무당이든, 地方 豪族이든, 도래인이든 화랑이든 간에 우리의 精神史的 맥락 속에서 길이 記憶되고 우리 先人의 情緒를 오늘에까지 이어 오는데 커다란 役割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古代社會라 할 수 있는 新羅의 社會·歷史·言語들이 더욱 研究되고 學問間的 상호보완이 이루어질 때 이 處容歌의 原來의 모습은 더욱 우리 가까이 다가 올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處容歌 處容說話 國語學 民俗 說話 歷史

* 중앙대 국문과교수

I. 序論

鄉歌에 대한 學問的 關心이 시작된 것이 1918年이니 대략 90年이 되는 셈이다.¹⁾

그 사이 이 方面에 對한 연구 업적도 상당히 축적되었고 이 연구 업적에 대한 綜合 檢討도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다.²⁾

주지하다시피 鄉歌는 新羅에서 비롯된 歌謠로 우리 文學의 母胎가 되는 주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향가는 『三國遺事』에 14수 『균여전』에 11수가 남아 전하는 바, 이 중 본고에서 다루려는 處容歌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남다른 바가 있었다.

그런데 鄉歌 전반에 대한 研究史의 檢討는 위에 든 것 외에도 황폐장에 의해 比較的 尠少하게 정리되었거니와³⁾ 鄉歌 25篇에 대한 개별 作品의 研究史 整理는 아직도 미진한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研究 結果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학문적 업적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사가 지니는 의의라 생각할 때 이에 대한 관심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다만 연구사 정리는 그리 녹록한 작업이 아니다. 의미 있는 연구 업적들을 빠짐 없이 조사하고 정밀하게 분석하여 연구자의 의도를 찾아내야 한다. 또 다양한 필자들이 원용 또는 직접적으로 적용한 이론들을 간파하고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의 호응, 의의, 문제점 전망 등을 짚어 낼 수 있어

* 이 논문은 필자의 1986년 채용연구논총에 수록된 것을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보완 작업에 서대석, 김학성, 신재홍 교수의 글을 필자들과 협의하여 인용한 것을 밝힌다. 세 분께 감사드린다.

1) 黃溟江(1984), 「鄉歌研究史序說」, 『鄉歌, 古典小說關係論著目錄』, 檀國大出版部, p.11.

2) 이에 대한 檢討는 주로 金烈圭, 黃溟江, 金完鎭 諸氏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업적은 다음과 같다.

金烈圭(1972), 「鄉歌, 麗謠研究의 過去 및 展望」, 『國語國文學』 58~60號

黃溟江(1974), 「鄉歌研究試論」, 『古典文學研究』 2號, 韓國古典文學研究會.

金完鎭(1982), 「鄉歌의 解讀과 그 研究史의 展望」, 『三國遺事와 문예적 가치해명』, 새문사 등.

3) 黃溟江(1984), 上揭書, pp. 11~74.

야한다. 특히 연구결과나 그 성과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사실 이상으로 과장하거나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本稿는 處容歌에 한정하여 그 研究의 업적을 정리하여 앞으로의 研究方向의 모색과 課題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상당한 量의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⁴⁾ 아직 이 方面의 本格的인 整理 作業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처용가와 처용설화의 研究 現況을 파악하고 새로운 探究를 위한 地뎁들이 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능력의 한계 등으로 미진함이 많이 남는 것은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처용가와 처용설화의 연구사는 그 새 여러 편이 나왔다.⁵⁾ 그런데 연구사와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분야별로 개별 연구사가 최근 새로 정리되었다는 점이다. 이 작업은 처용연구전집 간행 위원회에서 발간한 처용연구전집 속에 수록되어 있다.⁶⁾ 분야별로 민속은 서대석, 문학은 김학성, 어학은 신재홍 등 제씨에 의해 기술된 이 연구사는 각 전공자들에 의해 기술된 본격적 연구사로 기록될 것이며 여기서는 이 분야별 연구사를 한데 묶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研究史를 整理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發表 論文의 年代를 따라 編年體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도 있고, 主題나 素材에 따라 分類 檢討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총괄적 概觀으로, 項目別로 分類하여 全體 研究者의 업적을 檢討하는 方向으로 서술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러한 방법에도 여러 가

-
- 4) 강재철·김영수(1984), 『향가, 古典小說關係 논저목록』, 단국대출판부. 처용가 및 처용설화에 대한 논문으로 대략 70여 편이 위의 책에 수록되었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논문의 양이 300여 편이 된다.
- 5) 최성호(1979) 「처용가 신역」 국어국문학 81호.
 趙哲煥(1983), 「處容說話의 研究史的 檢討」, 檀國大 碩士學位論文.
 김경수(1986), 처용가의 연구사적 검토, 처용연구논총 울산문화원.
 김진영(1986), 「처용의 정체」, 『한국문학사의 쟁점』, 장덕순교수회갑기념논문집, 집문당.
 김영수(1999), 「처용가연구의 종합적 검토」, 국문학논집 16집, 1999. 8, 단국대 국문학과.
- 6) 처용연구전집은 모두 7권으로 된 처용연구 논문을 집대성한 책이다. 처용연구 간행위원회에 의해 발간된 이 책은 어학, 문학, 민속, 역사, 종합, 예술로 이루어졌다.

지 설정 기준이 있겠으나 敍述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制限하려 한다. 곧 『三國遺事』 권 제二에 진하는 ‘處容郎 望海寺’條에 나오는 처용가의 향찰을 어떻게 現代語로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설화와 노래에 대한 연구, 주제에 따른 분류로 說話的 側面·民俗學的 側面·文學的인 側面·綜合的인 側面·其他로 項目을 設定하고 各 項目에 속하는 논문 研究者들의 논지를 해석하고, 이에 대한 意見을 간헐적으로 첨가할 것이다. 거듭 밝히거니와 筆者의 寡聞으로 인하여 논문을 빠뜨리거나, 研究者의 해석을 잘못 전달할 수도 있으리라 여겨 미리 양해를 구한다.

II. 研究史的 檢討

1. 語學的 解釋

주지하는 바와 같이 處容歌 및 그에 관한 說話는 『三國遺事』 卷二 「處容郎 望海寺」條에 실려 있다.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그 全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何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二勝隱吾下於叱古
二勝隱誰支下焉古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良乙何如爲理古

이상의 原文을 어떻게 解讀하느냐가 初期 研究者들의 공통된 관심사였다. 이에 대한 초기의 작업은 日人學者들에 의하여 시도되었고⁷⁾, 이

7) 이에 관계한 日人들의 研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어서 梁柱東⁸⁾, 權憲奎⁹⁾, 申采浩¹⁰⁾ 님들에 의해 진일보하였다. 이 시대에 나온 일인학자 小倉進平과, 국학자 梁柱東의 解讀을 비교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㉓ 小倉進平의 解讀

東京 붉은 들에
밤들어 노니다가
들어사 자리에 보곤
가률이 네히리라
둘은 나이엇고
둘은 누이언고
믿이 내이다 마른
째앗어늘 엇디 흐리잇고

㉔ 梁柱東의 解讀

식불 불기 득래
맘드리 노니다가
드리사 자리 보곤
가르리 네히어라
둘흔 내헤엇고
둘흔 누헤언고
본디 내해다마른
아사늘 엇디 흐릿고

-
- ① 金澤庄三郎(1918), 「吏讀の研究」, 『朝鮮叢報』 4號.
 - ② 小倉進平(1929), 「郷歌及吏讀の研究」, 『京城帝大法文學部 紀要』 第 號
 - ③ 前問恭作(1929), 「處容歌解釋」, 『朝鮮』 172, 朝鮮總督府
 - ④ 鮎貝房之進(1923), 「國文·吏吐·俗謠·造字·俗字·借訓字」, 『朝鮮史講座』, 朝鮮史學會.
- 8) 梁柱東(1942), 『朝鮮古歌研究』, 博文書館.
- 9) 權憲奎(1922), 「處容歌解讀」, 『朝鮮語文經緯』, 廣文社
- 10) 申采浩(1925), 「朝鮮古集의 文學과 詩歌의 變遷」, 東亞日報.

이상의 ㉠과 ㉡의 解讀을 보면 先과 後의 時差가 있기는 하지만, 母國語의 情感을 지닌 解讀이 문자 이해 면에서나 내용 파악에 있어 우리의 정서에 부합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다시말하면 梁柱東의 해독이 지극히 詩的 이면서도 그의 상상력과 어휘구사가 탁월하다는 것을 말한다. 풍부한 語學的 識見도 엿볼 수 있으니, 한국어에만 나타나는 연철이라든가 ㅎ終聲의 적용 및 △, ㄷ의 활용이 그것이다.

외국인으로서 우리 歌謠를 解讀한 小倉進平의 노력도 우리는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다. 무엇보다 선편을 잡은 노고를 인정해야 한다. 解讀 자체에 대하여는 크게 다른 바가 없으나, 東京과 本矣의 讀音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는 뒷날 徐在克·金俊榮과 池憲英·金善琪 등에 의하여 ‘東京’ 또는 ‘서불’, ‘사라뿔’ 등으로 再論되기도 했으나, 本質的인 커다란 문제는 없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사의 기술은 보다 전문적인 식견과 천착을 요하는 작업이다. 이에 해당되는 최근의 노작으로, 연구사를 심도있게 기술한 논문이 있다¹¹⁾. 이를 소개함으로써 어학분야 연구사의 요체를 제시하고자 한다.

『삼국유사』에 향찰로 기록된 신라 <처용가>는 조선시대 『악학궤범』과 『악장가사』에 실린 고려 <처용가>에 제6행까지가 한글로 적혀져 오늘날까지 전해 온다. 고려 <처용가>가 신라의 향찰 표기를 제대로 옮겼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체 8행 가운데 제6행까지는 이미 오래전에 근사치의 해독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20세기 초에 들어 현존 향가 전작품에 대해 해독해 보려는 시도의 출발점이 <처용가>였다. 이미 제6행까지 해독된 향찰 표기를 한글과 관련지어 살피기가 쉽고, 시상의 흐름을 고려하고 다른 이두 문자를 참조하면 나머지 제7, 8행에 대한 해독이 가능하다. 이에 다른 작품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처용가>에 대한 해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11) 신재홍(2005.10), 처용가 연구사, 처용연구전집 권1, 역력출판사.

작품 해독의 선편은 일본 연구자들이 쥐게 되었다. 1918년에 金澤庄三郎이, 1923년에 鮎貝房之進이 우리나라 이두 문자에 대해 논하면서 해독의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작품에 대한 해독을 제시한 바 있다. 후자와 같은 해에 권덕규 역시 우리나라 언어와 문학의 역사를 기술하는 중에 향가의 예로 이 작품을 들면서 해독을 제시하였는데, 제8행 ‘奪叱良乙’을 ‘아인들’이라는 피동형으로 읽은 것이 주목된다.

향가 해독의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이들 논의에 이어, 1929년 현존 향가 전작품을 대상으로 해독한 업적이 小倉進平에 의해 이루어졌다. 향가 해독의 선구적이고 획기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 관한 한, 제7행 ‘本矣’를 말 그대로 ‘밑에, 밑의 것이’라고 풀이한 것과 같은 미흡한 대목을 노정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동학들에게 자극을 주어, 책이 나온 그 해에 前間恭作의 소론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1936년에 유창선, 1940년에 辛兌鉉의 논의가 이어졌다. 일본어로 쓰인 신태현의 논문에서 제3행 ‘寢矣’를 ‘자리’가 아닌 ‘몸체’로, 제4행 ‘脚鳥伊’를 ‘다리, 가르리’가 아닌 ‘허퇴’로 읽은 점이 특이하다.

1942년에 나온 양주동의 업적은 향찰 해독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고 방대한 중세어 문헌 자료를 섭렵하여 얻어낸 향가 연구의 기념비적 성과이다. 이후 향가의 어학적 해독과 문학적 해석은 모두 이 성과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용가>에 한정지어 본다면 제1행 ‘東京明期月良’을 ‘시불 불기 드래’로 읽으면서, ‘동경’이라는 용어가 신라시대에 이미 쓰였다는 점, ‘불기’의 ‘-기’가 명사형이지만 뒷말을 수식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제3행 ‘見昆’의 ‘-곤’, 제5, 6행 ‘下於叱古, 下焉古’의 ‘-엇고, 언고’의 문법적 기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소창진평에서 잘못 나간 제7행 ‘本矣도 뽀 디로써 바로 잡아 놓았다. 그의 해독을 통해, 문법적 관계에 따른 <처용가>의 문맥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에 걸쳐 지현영, 홍기문, 이탁 등이 향가 전작품에 대한 해독을 시도하였다. 이제 논의는 소창진평과 양주동의 업적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다. ‘東京’의 독법에서 지현영은 양주동을 따랐고, 홍기문은 양주동이 들었던 자료 이외의 것들을 제

시하면서 양주동 이전의 독법인 ‘東京’으로 돌아갔다. 홍기문은 또한 새로운 독법을 시도하여 ‘本矣’를 현대어 ‘아에’에 해당하는 ‘아세’로, ‘奪叱良乙’을 ‘일-벗다’의 뒷 형태로써 ‘바사늘’로 읽었는데, 이러한 독법의 의미상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지현영은 ‘바사늘·빼앗긴것을, 빼앗아갔거니’로 풀이하여 피동형과 능동형의 두 가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의미 파악이 모호해진 경우가 되었다. 양주동은 ‘寢矣’를 ‘자리’로 읽으면서 ‘자래’로 읽을 가능성도 열어 놓았는데, 이탁이 후자를 선택하여 ‘잘익’로 읽었다.

1960년대에는 김준영, 정렬모, 김선기 등이 향가 전작품을 해독하였다. 김준영은 이탁과 유사하게 ‘寢矣’를 ‘자리’로 읽었고, ‘奪叱良乙’에 대해서는 1964년에는 양주동처럼 ‘빼앗은 걸’로 풀이하였다가 1979년에 개정하면서 ‘빼앗은들(빼앗음을)’로 바꾸었다. 후자에서 ‘빼앗은들’은 의미가 변하는 어형이므로 문맥 파악에 혼선을 가져오게 되었다. 정렬모는 파격적인 끊어읽기를 통해 색다른 해독을 시도하였다. 보통 ‘月良夜入伊’로 끊었던 것을 ‘月 良夜入伊’로 끊어서 ‘양야’(좋은 밤)로, ‘入良沙 寢矣’로 끊는 것을 ‘入良 沙寢矣’로 끊어 ‘시침애’(새방에, 신혼부부가 거처하는 방에)로 읽었다. 또한 ‘奪叱良乙’을 아예 ‘아스뿔’로 읽어 동명사형 ‘-口’을 문면에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이는 고려 <처용가>에서 명백히 제시된 끊어읽기를 무시하였을 뿐더러 향찰 해독의 상식을 깨뜨린 것이므로, 새롭기는 하되 해독의 의의가 별로 없게 되었다. 김선기의 독법도 독특하여 그가 지닌 만주어, 몽골어, 일본어 등에 대한 음성학적 지식을 우리 고대어에 결부시켜 ‘東京’을 ‘시서불(사라뿔-1967년 논문)’, ‘四’를 ‘넉(낙-상동)’, ‘下’를 ‘까’ 등으로 읽었다. 이렇듯 독법에서는 특이한 점이 많지만, 의미상으로는 ‘本矣’를 ‘몬이(모토이-상동)’로 읽고 소창진평의 ‘밑에, 밑의 것이’로 돌아간 것 말고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정렬모, 김선기의 독법이 새롭기는 하지만 해독의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1960년대에 향가 전작품을 해독하려는 위와 같은 시도들과는 별도로, 1961년 국어사를 기술하는 중에 제시된 이기문의 해독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는 작품 해독의 관건이 제

7, 8행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처용의 ‘체념’이 아니라 ‘진노’가 여기에서 표현되었을 것이라고 진제하였다. 독법상으로는 ‘奪叱良乙’을 ‘아스를(아살/아살-1972년 개정판)’로 읽고, ‘何如’의 ‘如’는 반드시 ‘다/더’로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제8행 ‘奪叱良乙何如爲理古’를 ‘아스를 었더 흐릿고(빼앗음을 어찌 하릿고, 어찌 (감히) 빼앗음을 하릿고)’로 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1972년 개정판에서는 애초의 문제제기 부분을 삭제한 채 구절에 대한 해독만을 제시하여 이전의 주장이 다소 막연하게 처리되었다. 연구사적으로 개정판보다는 초판의 문제제기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1970년대에는 기존의 해독을 수렴한 김상익, 김근수의 해독이 있었고, 향가 전작품에 대한 서재극의 해독이 이루어졌다. 서재극은 경상도 방언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고대어 단계의 재구형을 엄두에 두면서 ‘脚烏伊’를 ‘갈외’, ‘二勝隱’을 ‘두블흔’, ‘本矣’는 ‘아리’ 등으로 읽었다. 재구형을 고려한 독법상의 특징이 있지만, 작품의 의미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1980년에 김완진의 해독이 일단락되어 나왔다. 이 업적은 국어학적인 견지에서 양주동의 성과를 비판하고 향가 전작품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향가 해독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이 작품의 제1행 ‘明期’에 대해서 <원가>의 ‘好支’를 ‘도히’(종계)로 읽은 서재극의 견해를 참조하여, ‘明期’와 ‘好支’가 같은 어법임을 지적한 점은, 이로써 양주동 이래 명사형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설명한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 시각이었다. 그러나 별 다른 설명 없이 ‘밝은, 좋은’의 관형사형으로 풀이한 점은 좀더 논의해야 할 대목이다. 그 밖의 것은 대개 양주동의 성과를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김완진 이후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까지는 고영근, 박창원, 정창일, 고정익, 최남희 등 국어학자들이 대거 해독에 참가하였다. 이 시기 향가 전작품을 해독한 연구자는 정창일뿐이고, 다른 연구자들은 <처용가>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정창일의 해독은 작품에 대한 불교적 설명이 낫설 뿐 아니라 독법도 상식에서 벗어난 점이 많지

만, ‘明期’에 ‘ㄴ’을 첨가하여 ‘불권’으로 읽은 것은 생각해 볼 만하다.

고영근은 새로운 해독을 시도하였다기보다는 해독된 결과를 놓고 고대국어의 어미 교체, 접속구문의 명사적 용법을 찾아본 것이다. 박창원은 작품 전반에 걸쳐 국어학적인 의문들을 제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明期’를 ‘ㄴ’ 표기가 생략된 것으로 보았고, ‘月良’의 ‘良’을 나열의 뜻을 갖는 ‘-랑’으로 읽었다. ‘入良沙’의 ‘沙’가 문맥상 강세사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汝’의 오기로 보았다. ‘奪叱良乙’은 문맥상 피동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아 ‘叱’을 ‘시/시’로 읽었다. 그리하여 ‘서울 밝혀주는 달과 더불어’, ‘들어 네(아내의) 자리를 보니’, ‘빼앗길 것을 어찌 할 것인가’ 등으로 풀이하였다. 오기의 판단, ‘良, 叱’에 대한 독법 등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해독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문장성분 간의 관계를 좀더 엄밀히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의의가 있다.

고정희는 제1행 ‘月良’의 ‘良’을 호격 조사로 보아 ‘드라’(달아)라고 읽었다. 또한, 이기문이 제기한 문제를 수용하여 제8행을 ‘아사늘 었디 흐리고’로 읽고 ‘(현재 역신이 범하고 있으니) (내가) 빼앗음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로 풀이하여, 달에게 묻는 것으로 해독하였다. 이기문의 문제의식을 구체화하였고, 빼앗음의 주체를 ‘나’로 파악한 점은 해독의 방향 전환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良’을 호격으로 본 점은 작품 해독의 한 준거가 되는 고려 <처용가>와는 동떨어진 결과가 되었다. 작품 제8행만을 집중적으로 고찰한 최남희의 결론은 ‘(다시) 빼앗음이 어떠합니까?, (다시) 빼앗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인데, 이는 앞서 본 고정희의 결론에 근접하고 있다. 다만, 처용의 진노가 아닌, 아량과 관용으로써 자기 아내를 찾으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1990년대에도 국어학자의 작품 해독은 이어져서 유창균과 강길운이 향가 전작품을 해독하였다. 김완진 이후 1990년대까지 지속되는 이러한 경향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른 작품 해독을 어학적인 엄밀성을 적용하여 좀더 완성도를 높이려는 학계의 의지가 반영된 현상이라 할 것이다. 유창균은 제1행의 ‘月良’을 ‘들이라’(달이기에)로 풀이한 점이 특색이다. 그 밖에 ‘寢矣’를 ‘잘디’, ‘奪叱良乙’을 ‘아슬랑을’ 등으로 읽어 기존의 독법과 차이를 두었으나, 작품의 의미는 양주동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았다. 강길운이 ‘月良’의 ‘良’을 호격 조사로 본 점은 고정외의 견해와 같다. 그렇지만 고정외의 해독이 ‘달아,···(다시) 빼앗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는 데 비해, 강길운의 것은 ‘달아,···이 일을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한탄하는 점이 다르다. 강길운이 ‘奪叱良乙을 하살’(빼으려 하는 것을)로 읽어 ‘-려 하다’의 미래형을 밝힌 점은 의의가 있다.

1997년에 향가 전작품을 해독한 양희철의 연구가 나왔다. 어학적 해독과 문학적 해석을 함께 시도한 그는 향찰 중 몇몇 단어를 중의적(重義的)으로 풀이한 점이 특색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제8행에 대해 ‘앗알 엇다 흐리고’로 읽고 ‘내가 앗을 것을(장차 빼앗음을) 차마 어찌 할 것인가’, 곧 ‘가없고 앗아하여 차마 다시 빼앗음만은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이는 고정외, 최남희가 빼앗음의 주체를 ‘나’로 파악한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뒷 부분의 의미는 반대로 이해한 것이다. 한편, 이 해에 나온 황선엽의 논문에서 ‘脚鳥伊한 단어만 다루어 ‘가를, 가를’이 아닌 ‘허튀보’ 읽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해독의 초창기부터 그렇게 읽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1980년대 이후 국어학자들의 논문에서 ‘허튀’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진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지만 고려 <처용가>에서 ‘가를’의 형태가 나타난 점까지를 국어사적으로 설득력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미약한 추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2000년에 신재홍이 향가 전작품에 대한 해독을 다시 내놓았다. 근래에 들어 작품 제8행에 대한 의미 파악에 변화가 온 경향을 잇는 한편, 제8행의 ‘何如’를 ‘엇더다’(어떻다, 어떻게)로 읽은 점이 기존 논의와 구별된다. 그리하여 ‘[도로] 빼앗아 움을 [사람들이] 어떻게[고] 하리오?’라는 풀이가 이루어졌다. 이기문의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빼앗음의 주체를 ‘나’로 파악한 고정외·최남희·양희철의 관점을 이으면서도, 처용의 체념이 이전에 이해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 나온 문맥으로 해석하였다. 아내를 빼앗아 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더러운 사건에 나까지 빠지게 되었다고 비난하지 않겠느냐는 반문인 것이다.

이상에서 <처용가>에 대한 어학적 연구의 흐름을 정리해 보았다. 양주동에서 풍부한 근거를 바탕으로 얻어진 결론이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게 의해 문제점들이 지적되긴 하였지만, 그 골격은 그대로 수용되어 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 제8행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통해 새로운 해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국어학적인 엄밀성이 강화된 문장 분석과 함께, 언어로 구축된 문학 작품으로의 <처용가>에 대한 문예미학적 고찰이 심도있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2. 說話文學의 解釋

處容歌의 說話文學의 解釋은 民俗學의 接近과 함께 가장 빈번히 논의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참여한 學者로 孫晉泰·黃淇江·張籌根 등이 가장 대표적 업적을 남기고 있고, 이 밖에 玄容駿·정병헌등이 이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說話는 그 속에 내재된 民族 思想의 추출과 함께 社會 變動과 더불어 나타나는 民族的 底層文化를 파악해 보는 척도가 된다. 최근 이 부분에 대한 연구사가 김학성 교수에 의해 작성되었다¹²⁾. 유려한 문체와 기술적 방법론이 돋보이는 내용이다.

『삼국유사』의 기이편 처용랑 망해사조에 전하는 처용 텍스트에 관한 문학적 연구는 그 중점을 시가에 두느냐 설화에 두느냐로 대별되지만 둘 사이가 워낙 밀착되어 있어서 시가 연구를 위해서는 설화의 천착이 불가피하고 설화 연구를 위해서는 시가의 성격 파악이 긴요하기 때문에 양자를 분리해 연구하는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거기다가 처용전승이 워낙 역사성과 문학적, 민속성, 예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어서 순전히 문학적 연구로 이루어진 논의는 오히려 드물고 다면적 연구가 중심 흐름을 이루어 왔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다만 편집 체제의 편의상 설화에 보다 중점을 두거나 설화성의 문학적 해명에 어느 정도 경사를 보이는

12) 김학성(2005.10), 처용전승의 설화 중심 문학적 연구사, 처용연구전집권 2, 역락출판사.

연구 성과를 여기에 모아 그 연구사를 일별해 보고자 하니 일부 어긋나는 면이 있더라도 양해 있기 바란다.

설화의 서술 특성은 $N=E\pm a$ 라는 간명한 공식으로 요약된다. 이는 N(narrative) 곧 설화문맥의 '서술성'이 전혀 허구적으로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 E(evidence) 곧 역사적 근거(증거물)를 바탕으로 하여 거기에서 어떤 필요와 흥미 및 합리성을 위해 '윤색과 가감'을 통한 허구적·상징적 조작인 $\pm a$ 가 가해진 것으로 봄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용전승의 설화 중심 해명 작업은 역사적 근거(evidence)를 어디에 두느냐와 텍스트 서술의 허구성과 상징성($\pm a$)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처용설화의 근거가 되는 E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연구 경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으니 하나는 역사적 근거를 종교적(민속적 혹은 불교적) 대상물 혹은 관념(상상력)에서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실재(정치적·사회적 사실)에서 근거를 잡아 설화적 맥락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다.

설화 중심 연구사를 일별해 보면 민속적·종교적 이해에 친연성을 갖는 연구에서는 주로 종교적 관념이나 대상물에서 역사적 근거를 찾는 경향이 강하고, 이에 비해 역사적 실재에서 설화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은 설화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연구되는 것이 대체적 특징이다. 이제 이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연구사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전자의 경우 초기연구에서부터 근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연구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설화 중심 연구사의 길을 연 손진태(1930)는 어떤 숭배대상이나 사실이 먼저 있고 그에 따라 설화가 발생한다는 관점 아래, 벽사진경의 주술적 문신(門神) 즉 처용 화상(畫像)이 민속적으로 먼저 존재하고 두역신(痘疫神) 구축(驅逐)을 위한 가무와 첩문(貼門) 화상에 의한 벽사의 설화가 생겼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처용은 민속적 숭배대상일 뿐 역사적 실재성을 갖는 인물은 아니라는 것인데 과연 처용에 관한 민속신앙이 먼저이고 설화가 나중이라는 판단이 옳은 지는 실증적 근거 없이 추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의문을 갖게

한다. 『삼국유사』의 처용전승 문맥을 따져서 읽으면 처용에 관한 역사적 사건이 먼저이고 그가 벽사진경의 문신이 된 것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한 나중의 일이라 기술되어 있어 의문을 더해준다. 다음 안자산(1930)의 경우 역시 큰 틀에서는 손진태와 견해를 같이하므로 마찬가지로 한계를 안고 있지만 처용설화의 설명을 세부적으로 좀더 천착하여 신라의 처용전설이 뒤에 나희(儼戲)와 합해져 나후라(羅暎羅)와 관련하여 불교적으로 장식된 것이 고려의 百戲의 하나가 되었으며 역신은 손진태와 달리 두창신(痘瘡神)이 아니라 일반 악병의 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손진태와 안자산이 처용설화 해석의 길을 열었다면, 장주근(1963)은 Harrison의 신화이론을 처용설화에 적용하여 이 설화의 발생론을 좀더 정교한 이론으로 해석한 점에서 한 단계 진전을 가져왔다. 즉, 그 역시 벽사가면인 처용가면이 먼저 존재하고 그 가면을 설명하기 위해 후대에 설화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앞의 두 선학(先學)과 마찬가지로 한계를 갖지만, 가면이 인격신화(人格神化)하고 여기에 신격적 존재에 대한 지적 욕구로 '설명성'이 개입되어 처용설화가 형성되고 나아가 망해사 연기설화로 윤색되었다고 논리화함으로써 설화의 단계적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해낸 점은 발전적이라 할 수 있다. 황폐강(1963)은 처용가의 노래 자체로만 볼 때 불찬(佛讚)이거나 무가이거나 구나(驅儼)의 노래로 설명될 근거는 없다는 중요한 지적을 하면서 처용설화는 불(佛) 도(道) 선(仙)과 무속 관념의 다양한 복합(complex)로 된 작품이라고 했다. 그러나 왜 그러한 관념들의 다양한 복합체인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나 논증 없이 추론에 의한 주장이어서 수증하기는 어렵다.

김정엽(1968)은 장주근의 설화 이해와 이론적 틀을 기본적으로 같이 하면서 다만 설화의 단계적 변화의 세부를 달리한 점이 차이를 보인다. 즉 처용의 전설이 합리화되면서 개운포 지명전설로 되고 이것이 다시 망해사 창사설화로 변화·합리화되고 여기에 별도로 「뿔섬전설」이 결합 연결되면서 무격(巫覡)들의 작위와 윤색이 가해져 문신신앙과 역사적 관념이 결합하여 복합설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무속사회의 「뿔섬전설」과 결부시킨 것이 특이하나 이 역시 근거 없는 추정의 한계에

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설성경(1974)은 처용전승을 울산 처용암과 장성(長城) 처용암의 두 계열로 파악하면서 전자로만 기울어진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현지답사를 통한 구전자료까지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시각의 폭을 넓혔다. 거기다 두 설화 계열의 공통성과 함께 구조적 유사성을 이유로 ‘곳감설화’까지 관련시켜 결국 처용을 용신이면서 터주신으로 규정하게 되는데, 그 논리적 근거를 처용의 어의(語義)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이라는 인상을 준다.

윤영옥(1978)은 신라대의 처용관련 문헌을 거의 섭렵하여 제시하고 그 문헌 자료들을 근거로 처용전승의 성격을 규명하려 한 점에서 문헌 실증적 연구로서 기여하는 바가 인정되나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 처용의 실체를 규명하는 이론적 힘이 취약한 한계를 보여 자료의 산만한 나열처럼 보인다. 임기중(1988)은 처용설화를 변신모티프로 이해하고자 했는데 이에 따라 처용암은 바다의 용이 물의 사람으로 변신하는 관문으로, 역신은 천연두가 인간이나 신으로 변신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처용과 역신의 이러한 변신의 대결담을 創寺연기로 연결하여 불교 포교담으로 전환한 것으로 처용설화의 전체 틀을 이해했는데, 변신담의 인접자료로 든 것들이 처용설화의 변신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입론의 뒷받침이 없어 역시 한계를 보인다.

나경수(1992)는 설화의 전체 구조분석을 선행하여 그 틀을 ① 현강왕 이야기, ② 처용랑 이야기, ③을 사관(史官)의 기록으로 나누고, ①을 전설, ②를 신화, ③을 역사로 각기 다르게 성격 규정하고 처용가를 신라가 곧 망하리라는 국가의 운명을 절규하듯 노래한 참요적 기능을 갖는 노래라 이해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처용랑 망해사조의 동일문맥에 통합적·유기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이 설화 텍스트를 왜 굳이 세 부분으로 분해하여 각기 그 성격을 달리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며, 특히 처용가가 「지리가」(지리다도파노래)와 등위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참요적 기능을 갖는다고 본 것은 처용가의 노래 자체의 의미 지향으로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라 할 것이다. 처용가의 중심 주제가 마지막 7~8구에 놓여 있다고 볼 때 거기

서 신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참요적 징후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금기(1993)의 경우 처용설화를 이루는 화소들은 제의가 시행된 절차에 따른 기술로 보고, 이에 따라 처용설화를 처용의 입사식이 시행된 절차에 따른 기술과 처용이 역신을 물리친 제의가 시행된 절차에 따른 기술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으로써 '신화는 제의의 구술적 상관물'이라는 제의학파의 이론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렇게 제의 일면도로 이해하면 망해사 연기와는 어떻게 연결되고 신라 '망국'이라는 설화의 주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

최용수(1994)는 처용을 변신을 거듭하는 존재로 보고, 또 용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서 처용의 성격을 그에 따라 해명하고자 했으나 논리적으로 선명하게 풀지는 못하고 있다. 이유수(1990)는 울산지방의 내항(內港)인 사포(絲浦)에 선덕여왕대에 용을 위해 호국성지로 태화사(太和寺)를 건립한 바 있는데, 이에 맞추어 처용설화는 울산의 외항(外港)인 하곡(河曲) 즉 개운포에 역시 용신의 가호가 필요하여 현강왕대에 용을 위해 새 절 곧 신방사(新房寺)를 지어 용신제를 올리게 된 것으로 보고, 외적으로부터의 방어와 뱃길의 안전을 비는 의미에서 망해사(望海寺)라 하게 된 역사적 상황을 서술한 것으로 이해했다. 현지 답사를 통한 설화의 역사적 이해에 한 걸음 진전된 해석을 내어놓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망국'이나 역신 모티프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의문을 풀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E를 역사적 사건의 실재에서 잡아 설화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이해태도를 보이는 후자의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방면의 선편을 잡은 연구로 김학성(1977)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처용설화의 형성이 처용의 실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건담이 소문화 되어 여기에 설화담당층의 흥미소가 작용하여 처용설화를 형성하고 이어 무속사회로 견인되어 효용소가 작용하여 1단계 변이가 일어나고 다시 망해사 창건 연기에 연루되어 2단계 변이가 일어난 것으로 이해했다. 설화의 형성과 변이과정을 흥미소나 효용소 같은 전승동인의 이론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설명하려는 점에서 진전된 이해를 보이거나 처용의 실제

사건을 구체적으로 추적해 내거나 변화단계의 실증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한계를 보인다. 김승찬(1981)은 처용설화가 당대의 제반상을 반영한다고 보고 현강왕대의 사회상과 결부하여 이해하고자 했는데 망해사가 농업생산의 증대를 위한 생변력과 내우외환의 평정을 도모하여 왕권의 영원한 안정을 보증받고자 호국호법의 도량으로 건립된 것으로 보았다. 이 역시 처용설화 발생의 근거를 구체적인 역사적 실재에서 밝히지 않고 막연히 당대의 사회상이나 생변력 같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근거에서 밝히려 한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박노준(1982)은 설화의 ‘망국’이라는 주제에 무게 중심을 두어 현강왕대의 유략적·퇴폐적 풍조라는 사회상과 결부하여 좀더 당대의 역사 사회상과 밀착된 이해를 보임으로써 진전된 이해를 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강왕의 행차마저도 놀이행각으로 봄으로써 설화문맥과 어긋나는 면을 보였다. 현강왕의 순행(巡幸)과 가무는 호국성지에 있는 신들을 모신 제장(祭場)에서 왕권수호를 위한 왕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이다. 정병헌(1982)은 김학성의 설화 형성과 변화 단계를 수용하고 루마니아 민속학자의 방법을 원용하여 처용설화의 이해를 보다 심화시켰다. 즉 한 평범한 실제 사건을 기초로 처용설화가 형성되고 이어 이질적인 여러 설화 - 용신설화, 지명(地名)설화, 문신(門神)설화 등 - 이 망해사가 건립될 때 이루어진 연기(緣起)설화에 흡수되어 4단계(처용의 실제사건 → 민중설화 → 무속설화 → 불사연기설화)의 과정을 거쳐 복합설화로 일연에 의해 정착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쇼킹한 사건이라면 몰라도 한 평범한 사건이 설화화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김문태(1987)는 이우성(1969)에 의해 제기되고 논리화된 - 처용설화를 처용랑 망해사조의 전체문맥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논의를 수용하고 정밀하게 이해하여 이 설화가 불교의 영험이나 이적(異蹟)을 담은 다른 편목에 수록되지 않고 신라국가의 흥망과 관련된 기이편에 편재된 연유를 보다 설득력 있게 밝혔으나 불사연기 등 다른 모티프와의 관련은 소홀하다.

박기호(1988)는 처용랑 망해사와 처용전승을 범주의 오류를 피한다는 이유로 보다 치밀하게 이해하려 시도했는데, 이 때문에 처용설화 이

해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설화의 서술 특징은 안정성 지향의 법칙에 의해 문맥의 기술적(記述的) 안정을 지향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분해하여 이해하는 것은 설화의 정교한 이해보다는 혼선을 가중시킬 뿐이다. 또 처용 전체문맥을 이해함에 있어 미약해진 왕권의 강화 의지와 신라 망국의 원인을 신이(神異)의 관점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면서 여기에 작용하는 세 가지 축 - ① 신이한 힘들의 도움, ② 인간의 선택, ③ 국가의 운명 - 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기록자인 일연이 ②를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려 건국의 합리성을 고양하려 했다는 관점과, 이 조목의 제목으로 보거나 현강왕이 절의 창건을 명령한 사실과 일연이 이를 선택하여 이 서사문맥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보면 망해사 부분은 불교취향으로 읽어야 한다는 이해방식을 보인 것 또한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일연은 고려 말기 충렬왕대의 사람으로 고려 건국 기와는 거리가 먼 시대의 인물인데 그제서야 고려 건국을 합리화해야 할 시대적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일연이 승려라는 이유로 그의 선택은 무조건 불교취향으로 읽어야 한다는 논리는 엄정한 객관성과 증거를 중시하는 일연의 기술태도로 볼 때 온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처용 자료의 성격 파악은 그것이 생성되고 변화된 당대의 문화문맥에서 이해할 일이지 기록자 일연의 신분 성격으로 판단할 일은 아닌 것이다. 김학성(1990)은 처용설화의 텍스트 이해에 있어서 처용사건 관련 부분만으로 다루던 앞서의 연구태도를 수정하여 처용랑 망해사 전체 문맥에서 서술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현강왕대 이후 신라가 멸망하기까지의 역사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전체 문맥을 '망국'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역사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안태욱(1990)은 현강왕대를 불국(佛國)의 예토화(穢土化)로 전제하고 처용설화와 가요를 불교적 시각 일변도로 이해하는 문제점을 보였고, 김경수(1997)는 처용이 신라 중앙사회에 들어오는 과정에 현강왕과의 대결, 역신과의 대결을 거쳐야 했음을 근거로 당시 신라사회에 받아들여지기 힘든 도래인(渡來人)의 유형으로 파악하고, 설화의 구조를 현강왕의 치적과 신통력(망해사 세우기까지)을 드러냄에 이어, 현강왕의 위

대성(신들의 춤), 그리고 고려집권층에의 경계와 불감함 예고(산신, 지신의 춤)로 짜였다고 봄으로써 현강왕을 유락행각을 벌인 타락한 왕으로 보는 견해와는 정반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신통력을 발휘한 현강왕이 다스린 신라도 결국 망했는데 고려도 새로운 각오로 외세에의 대응과 국가통치에 힘쓰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일연의 역사인식이 담긴 텍스트로 보았다. 이는 앞서 박기호가 고려 건국을 합리화하려 했다고 보는 이해에서 진전된 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도래인 유형으로 파악한 것은 좀더 구체적인 실증이 따라야 할 것이다.

결국 설화 중심 텍스트 연구는 설화서술에서 E를 무엇으로 잡느냐와 허구성(±a)의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리고 원전이 지시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밝혀 텍스트의 역사성을 복원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게 한다. 거기 더하여 처용전승을 처용랑 망해사조의 전체문맥에서 보느냐 처용사건 관련 문맥으로 한정해 보느냐, 또 불교문화적 색채와는 거리를 가지는 기이편에 수록된 편찬체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느냐 도외시하느냐, 일연의 기술태도를 불교적으로 경사된 것으로 보느냐 엄정 객관적인 것으로 보느냐에 관건이 달린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연구사를 일별한 결과로 보면, 아무리 처용 설화가 민속적 혹은 종교적 사실에 견인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발생의 단초는 역사적 실제 사실에서 찾는 것으로, 처용전승은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문맥에서, 그리고 국가와 왕권의 존망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 기이편에 실린 것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며, 일연의 기술태도는 술이부작(述而不作)의 객관적 태도를 견지했음이 입증되었으므로 그가 승려라는 특수신분이었다고 하여 사료나 전거적 근거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불교적 윤색이나 개작을 가했다고 보는 태도는 옳지 않음이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서 드러났다 할 것이다.

3. 民俗學的 解釋

處容說話의 民俗學的 조명은 어느 분야보다도 활발히 論議되었다. 그만큼 民俗學的 性格 파악에 관심이 컸음을 드러낸 결과라 생각된다. 이 분야의 주된 논의는 대체로 세 가지 측면으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 疫神의 存在에 주목하고 이에 對한 論議와

둘째, 巫俗的 側面을 강조하여 處容을 巫祖로 파악한 경우

셋째로 說話의 構成을 劇的, 舞的으로 초점을 맞추어 演劇的 要素와 서사무가로 파악한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번 처용연구전집을 발간하면서 서대석 교수가 이 세 부분을 아우른 연구사를 집필하였다¹³⁾.

다음은 그 내용이다.

처용설화와 <처용가>의 민속학적 연구는 주로 무속적 관점에서 시도되었다. 고려가요 <처용가>가 무가임이 확실하기에 신라의 <처용가> 역시 주술적 무가로 보려는 관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었고 처용설화에서 동해용자로 등장한 처용이 역신을 물리치고 그 연유로 처용화상을 문에 부쳐 역신의 침범을 방지하게 되었다는 설화 내용에서 우리민족이 고대부터 가졌던 자생적 신앙인 무속신앙과 연계시켜 처용설화를 해석하는 연구시각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처용을 동해용신을 모신 무속사제자로 보고 역신과 처용처의 동침을 무녀와 역신의 교구로 해석하는 견해에서부터 처용은 무당이나 처용처는 역병을 앓았던 일반인으로 보고 처용의 창가작무(唱歌作舞)를 역신구축의 곳을 하는 행위로 해석하면서 처용가를 주술적 시가로 해석하는 관점 등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세부적 해석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면서 대립되는 견해가 많았다. 이러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연구사의 흐름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처용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처용이란 말의 뜻풀이에서 비롯되었다. 처용이란 말의 의미를 규정하는 연구는 바로 처용의 정

13) 서대석, 처용가 및 처용설화의 민속학적 연구사, 처용연구전집4, 역락 출판사.

체를 해명하는 작업으로서 처용설화를 일관성있게 해석하는 관점을 정립하는 단초가 된다. 안확(1930)이 처용을 '일식신의 성(星)'으로 해석한 이래 양주동이 「조선고가연구」(1942)에서 처용가를 해독하고 주석하면서 처용을 인육의 불자인 라후라(羅睺羅)로 본 이후 처용의 어의(語義)에 대한 풀이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졌다.

김용구(1956)는 「계림유사」에 '용왈칭(龍曰稱)'이라고 한 것에 착안하여 처용(處容)을 반절(半切)로 읽을 때 '총'이 된다고 하면서 처용의 어의를 용(龍)으로 보았다. 또한 용자가 들어있는 지명에서 용자의 훈독음이 ku, kus, Kut으로 되는데 이 역시 처(處)의 훈독음과 일치한다고 하여 처용의 의미는 용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신라 이전 원시수렵시대부터 용신에 대한 신앙이 있었는데 신라시대 전래된 대면무(大面舞)가 처용가면과 대치되어 변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조선조까지 나레에서 행한 처용무를 검토하였다.

김동욱은 김용구의 설을 비판하여 「계림유사(鷄林類事)」의 '용왈칭(龍曰稱)'은 '용왈미(龍曰瀾)'의 오류라는 설이 있어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용(龍)의 훈음을 kut으로 읽어 처용과 관련짓는 견해에 대해서도 <해가사>의 구(龜)를 '곰'으로 읽는 견해도 있어 미흡한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회의를 표시하였다. 이어서 처용을 무(巫)를 의미하는 차차웅(次次雄) 자충(慈充)과 연계시켜 사제자를 의미하는 '중' '축'의 한자음이 아닐까 추론하였다.(김동욱, 1961)

한편 김승찬은 처자(處字)의 상고시에 상통했던 한자음을 추(芻)자에서 찾아 처용을 '중용'으로 읽고 제용민속과 연계시키고 있다.(김승찬, 1961)

이러한 처용의 어의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처용가를 무가로 보고 처용설화를 무조처용의 본풀이로, 처용가를 본풀이 무가에 삽입된 단편무가로 해석하는 연구에서 처용을 무속사제자로 규정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와는 달리 처용을 '터알이로 해석한 김영수(金映遂)의 연구가 있다 김영수는 처용의 명의를 동토병(動土病)을 의미하는 터알이라 하고 축귀대신의 신상을 나타내는 가면을 터알바가지라고 하며 한자로 처하

용(處下容)'이라고 한다는 민속의 사례를 근거로 처용은 동토의 병귀라는 의미와 터알바가지를 쓴 역신상, 그리고 사귀 역신을 구축하는 벽사대신(辟邪大神)을 의미한다고 하였다.(김영수, 1964)

처용 어의에 대한 해석은 설화에서 처용이 동해용자로 되어있는 점에 주목하여 용을 의미하는 말로 풀이하는 경우와 가무로 역신을 굴복시켰다는 점에서 무(巫)나 벽사신을 의미하는 말로 풀이하는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한국어를 전공한 학자의 견해라기보다 민속학자로서 처용설화 해석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옳고 그름을 논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처용설화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처용설화 해석에서 민속학적 접근을 한 대부분의 연구는 처용을 용신이면서 무속인으로 보고 역신을 물리치는 구역신으로 처용이 신격화된 과정을 서술한 무속신화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용 출현의 의미를 용신맛이나 동해용신을 빙의하는 것으로 보고 처용의 가무행각을 무속의례를 통한 국정보좌로 해석한다해도 역신과 처용처의 동침을 이해하는 시각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역신이 처용에게 '노를 드러내지 않아서 감동하고 아름답게 여겼다'(不見怒 感而美之)는 설화귀절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짓고서 물러났다'(唱歌作舞而退)는 구절을 의식하여 처용가의 마지막 구절을 체념으로 보는 견해와 처용가를 역신을 구축하는 주술무가로 보고 <처용가>의 마지막구절을 질책과 호령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處容郎望海寺)>조의 기록은 현용준이 지적한 것처럼 개운포 지명전설, 망해사 창사연기, 문신유래, 상염무(霜髯舞)유래, 망국예언 등 잡다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중에서 처용을 중심으로 한 본원설화가 민속학적 연구의 핵심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잡다한 성격의 설화를 하나의 구조로 파악하고 일관성있는 논리로 해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초기의 처용설화연구는 삽화마다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는 복합적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가 많았다.

김동욱은 처용설화를 무조분풀이로 보면서도 분풀이로서 설화의 성격을 구명하지는 않았다. 김동욱의 주목할 견해는 역신과 처용처의 관

계를 이객관대(異客款待)의 습속으로 해석한 점이다. 처용이 아내와 동침하는 역신에게 노를 보이지 않은 것은 자기 집을 찾아온 이객에게 아내를 동침하게하는 풍습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증 사례로 함경도 재가승의 풍속, 제주도 머슴과 주부, 삼국유사 차득공(車得公)설화를 들고 있다.(김동욱, 1961) 문제는 이객관대 습속과 설화 문맥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객관대는 남편이 아내를 권하여 이객과 동침하도록 하는 것인데 설화에서는 역신이 처용 모르게 몰래 처용 아내와 동침을 한 것이고 이를 보고 처용은 창가 작무를 하여 역신을 굴복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객은 말 그대로 외래자로서 친구의 아내를 탐내서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역신은 처용의 아내를 탐내어 계획적으로 동침행위를 감행한 것이기에 이객관대 습속과는 다른 관통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설화 내용에는 부합된다고 본다.

처용을 용신을 모신 무당이면서 구역신으로 보고 처용 아내와 역신과의 동침을 역병을 앓는 것으로, 처용의 가무를 역병을 퇴치하려는 구역신의 무속의례로 해석한 견해는 김승찬에서 비롯되었다. 김승찬은 처용이란 말은 무당의 고어인 '좁옹'의 한자표기이고 처용가는 주술적 무가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신을 역귀로 쓰지 않고 역신으로 기술했다는 점과 '창가작무이퇴'(唱歌作舞而退)에서 퇴자를 해석하는데 목적이 없어 물리쳤다는 해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처용이 노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역신의 말이 주술적 구역행사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영수(金映濬)의 해석은 이러한 문제를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영수는 처용의 어의를 동토병인 '터알이'로 풀이하고 사찰에서 행하는 삼회향놀음을 처용놀음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역신 처용의 인형을 산문 밖으로 끌어내 달아나도록한다는 사례를 들어 벽사신으로서 처용의 성격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처용을 중국의 문신인 종규(鐘臚)나 위장군과 동류로 파악하고 장승을 의미하는 벽수가 한자어 벽사(辟邪)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여 처용의 문신으로서 성격을 장승과 같은 벽사신으로 파악하였다.(김영수, 1964) 이러한 벽사신으로서 처용의 성격을 바탕으로 처용가를 역신에게 고하는 발원문으로 보고 터알이병 환

자가 잠을 자고 난 뒤에 하반신불수병이 들어 본래 성한 다리로 회복되게 해달라는 의미로 처용가를 풀이하였다.

동경풍속(東京風俗) 가웃달밤 밤깊도록 노닐다가 늦게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를 보고나니 아랫두리 잘못쓰는 반신불수(半身不遂)였으니 본래(本來)에는 성한 몸이 이리되니 어찌해요.(김영수, 1964, 159면)

이러한 견해는 동토병에 대한 민속을 근거로 처용가를 새롭게 해석한 것인데 이후의 연구에서 비판도 계승도 되지 않았다. 동토병과 역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다. 또한 가면을 의미하는 '탈'과 동토병을 의미하는 '터알이'는 의미가 상통되기 어려운 것인데 이것들을 무리하게 결부시키고 역신의 인형인 제용과 역신을 구축한 처용을 연계시켜 무리한 해석을 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처용설화연구의 참고할만한 흥미 있는 많은 민속사료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연구에서 참조되거나 비판되지 않은 것은 이 논문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처용이 자기 아내와 동침한 역신을 보고 화를 내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었다는 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에서 처용처와 역신의 동숙을 신과 인간의 교구로 해석하는 관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견해는 김열규의 해석에 이어 김영수(金榮洙)에게로 이어졌다.

김열규는 처용을 무부(巫夫)로 보고 처용처와 역신과의 관계를 입무식에서 무녀의 빙신이나 접신으로 해석하면서 울주에서의 처용의 출현을 표착이객(漂着異客)인 용신의 출현을 제의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보고 처용설화를 해석하여 '그 용신의 자를 재연한 남무는 처용으로 명명되어 처용 자체가 된 뒤 경주로 귀환하고 접신한 무부와 맺어 당대 제 1급의 국무노릇을 하게 된 것에서 두 전승이 하나로 맺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하였다.(김열규, 1966) 이러한 견해는 김동욱이나 김승찬이 처용을 무속사제자로 본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새로운 견해는 처용처와 역신의 관계를 입무식에서 무녀의 빙신행위로 본 것인데 무녀가 몸주로 모시는 신격은 병을 주는 부정적 신은 없다는 것이다. 손님신은 굿거리에서 무녀에게 접신이 되기는 하나 몸주신이 되지는 못한다. 몸주가 되는 신은 병마를 구축하는 선신(善神)

이고 신자가 잘못하여 신벌로 병을 줄 수는 있지만 전염병과 같은 병을 주는 존재를 몸주신으로 위성하는 사례는 한국무속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처용처가 무너로서 역신굿을 하면서 접신이 되었을 가능성은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다면 처용의 창가작무행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김영수(金榮洙)는 처용설화가 역신신앙과 구역신 신앙이 결합된 것이고 처용처는 역신을 모시는 무너라고 하였다.(김영수, 1990)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일관성 있게 설화해석에 적용되려면 역신에 대한 국인 창가작무는 처용 아내가 한 것이어야 하고 처용가는 손님신을 찬양하고 처용신에게 병을 낮게 해달라는 기원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역신을 내린 처용처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처용이 가무행위를 하였고 처용가를 들은 역신이 굴복을 하고 사라졌다는 점에서 처용가의 사설은 찬신과 기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고려 처용가에 삽입된 신라 처용가의 가사 내용을 보더라도 역신을 찬양하는 노래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처용처와 역신의 관계를 무너와 몸주신의 교구로 이해하는 것도 석연치 못한 점이 있다.

현용준은 처용설화에서 용자출현(龍子出現), 미녀교혼(美女交婚), 보좌왕정(輔佐王政), 교구역신구축(交媾疫神驅逐), 국인문첩처용지형 이벽사진경(國人門帖處容之形 以辟邪進慶)으로 전개되는 처용중심의 본원설화를 추출하고 배경사상으로 역신질병관념등을 검토한 뒤 역신신화가 먼저 있었고 이에 대한 구역신 신화로 용자보정의 영웅전설을 삽입하여 처용설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론하였다. 또한 제주도 무속사례를 예증으로 처용이 무당이고 처용의 가무는 역병을 퇴치하는 구역신 가무임을 논하였다.(현용준, 1968) 이는 역시 처용을 구역신의 무격으로 보고 처용처와 역신의 교구를 역병에 걸린 것으로, 그리고 처용의 가무를 역신구축의 무속의식으로 본 견해로서 기존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김승찬, 현용준으로 이어지는 처용의 무당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논의가 서대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서대석은 처용이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점에서 처용을 용신을 모

신 인간인 무(巫)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고 처용처는 무녀라는 근거가 없다고 하고 역신과 동침을 역병이 들은 것으로 보면서 처용의 가무를 역신구축의 곳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처용이 물러났다는 것은 곳을 하고 끝냈다는 것이고 노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축귀의식의 첫단계로서 사리를 따져 점잖게 꾸짖었다는 의미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처용가>를 무로서의 자기과시, 무적 영능의 표현, 정체를 드러내라는 명령, 문책으로 전개되는 주술시가로서 성격을 논하였다.(서대석, 1975) 이러한 연구사의 흐름은 보다 포괄적인 민속학적 접근으로부터 처용중심의 본원설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해명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다시 처용설화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확장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처용을 용신으로 보고 용의 권능을 추적하면서 불교의 법행용(法行龍)의 행적으로 처용의 보좌왕정의 성격을 해명하는 연구가 김종우와 김갑기등에 의하여 개진되었다.(김종우, 1970, 김갑기, 1980) 김종우가 처용을 불교의 법행용으로 해석한데 이어 김갑기는 용은 제석신의 일등 권속신이고 제석의 신능이 신라인의 의식구조 속에 용신의 사명과 같은 모양으로 자리잡았다고 하고 처용을 용신제의 주체무로 보고 처용의 취처를 인신교합으로, 처용의 행위를 제석의 자비로 풀이하였다.(김갑기, 1980)

한편 정상균은 처용을 사제자이면서 희생제물의 복합적 성격으로 파악하고 역신은 모계적 요구에 노예가 된 남성상으로 모계의 부정적 측면과 영합하고 있는 인간의 범죄적 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처용이 역신에게 노를 드러내지 않고 가무한 것은 역신 달래기 수법으로서 역신의 굴복은 모계의식의 굴복으로 보았다.(정상균, 1981) 이러한 논의는 인류학적 이론을 원용한 거시적 해석으로서 처용설화에 내재된 모계의식을 검토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산선일랑(剛山善一郎)은 처용설화 전반을 처용과 역신의 종적 이중구조와 무교와 불교의 횡적 이중구조로 파악하면서 처용설화의 중층구조를 해명하였다, 이어서 <처용가>와 처용회를 일본의 도조신(道祖神)과 대비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그리하여 일본의 도조신

신앙은 처용신과 장승신앙을 합친 것과 일치하며 성적 대우에 의한 벽사관념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하고 장승의 배경설화와 도조신상의 유래설화 및 벽사관념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도조신과 처용과 장승에 대한 전승은 원초적으로 같은 근원에서 발원되어 시대가 지나면서 분리된 것으로 해석하였다.(강산선일랑, 1982) 이는 김학주가 처용의 문신유래를 중국의 문신인 종규신앙과 비교하여 검토한 것과(김학주, 1965) 함께 문신의 유래와 성격을 비교민속학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다만 비교민속학적 연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민속적 전승이 영향관계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여러 민족의 보편적 문화현상으로서 자생한 것인가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재액과 질병을 막기 위해 문을 지키는 신을 상정한 것은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는 어느 곳이나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문신의 형상이나 구체적 기능 또는 이에 대한 의식은 민족마다 다르게 구체화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문신으로서 처용의 성격이 시대에 따라 어떤 변모를 겪었는지를 김학주의 연구에서 중국의 종규민속의 사례를 시대별로 검토한 것과 같이 한국의 문신습속에 대해서도 역사적 변모를 검토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처용설화를 서사무가로 보고 서사무가의 서사구조와 연계지위설화구성을 파악한 김영일의 연구가 있다. 김영일은 처용설화와 <처용가>를 유사원리에 의한 주술매체로서 처용의 점신과 주술의 원형으로서 처용가로 해석하고 처용설화를 한국 서사무가에서 추출한 전기적 유형과 대비하여 무조설화로서 서사유형임을 논하였다.(김영일, 1984) 김영일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처용설화를 서사무가로 본 견해를 오늘날 전승되는 서사무가 자료와 대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처용설화를 굿의 구조와 연계시켜 논의한 박진태의 연구가 있다. 박진태는 굿의 전개가 내림굿, 신유(神遊), 싸움굿, 화해굿, 전송굿으로 진행된다고 하고 처용설화를 이에 맞추어 처용의 출현(내림굿), 울산에서 경주로의 이동(신유) 역신과의 싸움(싸움굿) 역신과의 화해(화해굿) 그리고 문신으로 정립(전송굿)으로 전개됨을 검토하였다.

(박진태, 1989)

이근표는 처용설화가 진승과정에서 변이되었다는 가정에서 변이의 양상을 검토하고 설화내용을 병곳, 용신곳, 산신곳, 지신곳의 모습이 담겨있음을 고찰하였다. 또한 처용은 신화적 영웅에서 비극적 전설적 영웅으로 변모하였고 <처용가>는 주술가요에서 서정성이 강한 노래로 변모하였다고 하였다.(이근표, 1989)

한편 임재해는 처용설화 서두의 태평성대의 기술은 반어적 인식의 산물이고 동해용은 동해에서 호법용 구실을 하는 용신신앙을 가진 무당집단으로 해석하면서 처용은 처용탈을 쓰고 처용굿을 하는 처용광대나 처용무당이라고 하였다. 또한 처용의 급간직 벼슬은 나라굿을 하는 국무로서 사제왕 노릇을 한 것으로 처용과 역신의 동침은 신들림이자 병들림의 두가지 성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임재해, 1999) 이러한 연구는 처용설화를 한국의 굿 전반과 관련시켜 검토한 것으로서 무속적 해석을 확장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성과는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조의 기록과 고려시대 <처용가> 그리고 악학궤범의 <처용무>에 관한 기록, 그리고 제용민속까지를 통합하여 기존의 연구성과를 교합하여 전개한 것으로서 처용에 관한 매우 다양한 논의가 개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용설화 자체가 중층적 성격을 띄고 있고 연구대상이 설화, 시가, 무용 등 복합성을 가지기에 보다 심화되고 정심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들을 종합하여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담론으로 모호한 결론을 끌어내기보다는 연구의 초점이 분명한 제한된 범위의 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기존 연구에 대한 섭렵과 이를 비판하는 새로운 발상과 그 발상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자료의 탐색이 필요 하리라고 본다.

4. 文學的 解釋

處容歌의 文學的 解釋은 크게 두 見解가 對立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곧 하나의 見解는 “詩的 metaphor가 缺如된 粗雜한 作品”¹⁴⁾이라는

14) 鄭炳昱(1972), 「文學으로 본 處容舞」, 『大東文化研究所』別集 I, 成大.

解釋과 “天上的 image와 地上的 現實의 對立이 文學的인 Tension을 造成하여 높은 次元으로 止揚된 世界”¹⁵⁾라는 解釋이 그것이다.

前者는 鄭炳昱의 見解이고 後者는 黃湏江의 論理이다. 이는 곧 處容歌를 부대 배경을 무시한 채 노래 자체로만 해석하느냐 背景的 要素를 함께 考察하느냐의 觀點의 差異로 理解된다.

이는 두 사람의 視角의 差異로 빚어진 것으로 그 方法論이 바뀌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鄭炳昱은 위의 論文에서 作品 自體의 分析에 총력을 기울였다.

다시 말하면 文學은 그 작품에 나타난 것으로 檢討되어야 하고 그 외의 作家나 背景 등은 그리 重要視되지 않는다는 立場이다. 그 결과로 그는 作品에 나타난 修辭를 考察하고 美意識을 추구했으나 별다른 文學的 특징이 없다는 것이다. 詩的 metaphor나 主旨(Tenor), 媒體(Vehicle)가 없는, 따라서 Tension도 결여된 作品이며, 단지 美意識의 側面에서 滑稽미와 Irony의 새로운 시세계만 약간 드러났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十句體 향가를 詞腦歌라는 종래의 입장을 고수하고, 특히 이를 首都文學으로 인식하여 貴族文學으로 지칭하여 其意甚高하고 詞淸句麗한 文學이라고 한 반면, 八句體 文學인 이 處容歌·慕竹旨 郎歌는 首都圈外의 地方文學의 하나로 分類하여 폄시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主張은 處容歌의 유래나 形式이 확정되지 않은 이 視點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文學作品 자체도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規明되었다 하더라도 그 形式 하나에 얽매어 十句體는 首都文學이요, 八句體는 地方文學이라고 확일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黃湏江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와 대립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노래 자체도 重要하거니와 그 背景이 된 說話의 檢討없이 是 올바른 作品解釋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이 노래는 佛敎的 解釋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觀點에서 볼 때 이 노래는 다음과 같은 構造를 지닐 수 있다고 하였다. 곧 處容歌의 구조적 考察 로서

15) 黃湏江(1974), 前揭書

1~2구 : 피안으로서의 天上의 image를 示現한 것 같은 佛經에서 흔히 佛身이나 覺의 境地를 상징함으로써이다.

3~4구 : 煩惱, 不淨, 無常, 垢穢의 現實에 對한 直觀이요

5~6구 : 人間의인 分別에서 생긴 갈등으로 修道者의 危機로 看做되며

7~8구 : 分別의 위기를 넘어서 人間愚痴의 世界를 超脫하고, 피안에 의 지향이 展開된 것으로, 昇華된 天上의 image의 實現이요, 次元높은 價値의 世界이다.¹⁶⁾

이와 같은 構造 分析을 전체로 하고 볼 때, 處容歌는 확실히 佛敎의 文化作品으로 훌륭한 내용이 담긴 우수한 作品이라 할 만하다. 곧 그가 말한 “處容 自身の 捨心の 성취요, 人間愛憎의 世界를 초월한 피안의 世界, 離欲無私의 心境”이 나타났다고 하겠다. 處容歌를 이처럼 밀도있게 천착한 분석이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解釋에도 여전히 문제점은 남는다. 곧 文學作品은 內容으로만 따질 수가 없으며, 形式이나 리듬에 대한 考察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佛敎的 해석의 진체가 지나친 나머지 作品 自體를 너무 宗敎的 해석으로만 치우친 감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김학성에 의해 작성된 文學적 연구에 대한 종합적 연구사는 보다 정밀하게 기술되어 그 요체를 얻었다할 수 있다.¹⁷⁾

다음은 그 내용이다.

처용전승을 접근하는 방법으로 역사학적, 민속학적, 문학적, 종교적, 심리학적 등 다양한 관점이 있어 왔는데 그 가운데 문학적 연구방법이 중심이 된 것을 여기서 다루되 이를 다시 설화 중심과 시가 중심으로 나누어 후자에 해당하는 연구물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물론 시가 중심 연구도 설화문맥을 바탕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함께 관련시켜 논의한 것도 대상으로 삼음은 물론이다.

처용전승은 어떤 진공(眞空)의 상태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역사·

16) 趙哲煥(1983), 前掲 論文 p. 41.

17) 김학성(2005.10.), 처용전승의 시가 중심 문학적 연구사, 처용연구 전집3, 역락출판사.

문화적 실체로 산생된 것이어서 당대의 역사 문화적 맥락과 깊은 상관성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문학 텍스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소우주(小宇宙)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을 넘어서는 자율적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이런 연유로 하여 처용전승의 문학적 연구도 사회 문화적 맥락을 중시하여 이해하는 연구와 자율적 측면을 중시하는 연구로 크게 대별된다. 전자는 문학의 제반 현상을 그것이 산생된 사회 역사 사상 이념 등의 의미로 환원해서 이해하는 환원주의라 할 수 있고, 후자는 그 반대로 문학을 역사 문화 맥락에서 분리하여 그 자율적 의미나 문학성을 탐구해내는 분리주의 지향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 두 지향에 따라 연구사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처용전승의 문학적 연구에서 환원주의적 접근은 김사엽(1964)에서 시작된다. 그는 처용가를 <혜성가>와 <도술가> 같은 일종의 주술적·제의적 성격을 띤 불계(祓禳)의 노래로 규정하면서 불교적인 용신 숭배 사상 혹은 신앙으로 환원하여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 근거를 고려처용가에서 신라처용가 부분에 앞서 머즌말이라 단언했다는 면에서 찾았는데, 머즌말을 그의 생각대로 주언(呪言:주술의 언어)으로 봐야할 지도 의문이고, 또 그렇게 본다하더라도 고려처용가가 신라 처용가의 중심문맥인 7~8구를 삭제하고 머즌말이라 인용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리적 취약점이라 하겠다. 다음 황패강(1973)은 처용전승을 불교문학적으로 접근하여 이 방면에 수준 높은 이해를 보여주었는데, 그에 따르면 동해용은 호불호국(護佛護國)의 용으로, 처용의 가무는 집(執)을 버린 무애자재(無碍自在)의 깨달음을 노래한 것으로 결국 중생홍화(衆生弘化)의 불교적 교화가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호국용의 성격을 불교 일면도로 이해한 것은 그것이 오히려 고유신앙 혹은 화랑의 선도(仙道)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처용가 텍스트의 모든 의미를 불교적으로 환원하여 이해함은 신라 문화가 무물(巫佛) 습합 혹은 낭불(郎佛) 습합이라는 면에서 볼 때 편향적 시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서대석(1992)은 고려처용가를 무속문학적 관점에서 수준 높은 이해를 보여주었는데 고려처용가는 신라처용가와 달리 궁중의 나

례의식에서 불러진 것이므로 그러한 견해의 타당성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는 고려처용가의 서술이 축원-찬신(처용예찬)-공수-축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늘날의 무가와 구조가 거의 일치함을 밝히고 서술시점을 달리해 다양한 어조를 보이는 점은 회곡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텍스트의 문학성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면을 보인다 할 것이다. 김정희(1994)는 처용가를 향가에 능한 화랑에 의해 창작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들의 국가수호의식에서 불린 노래로 이해했는데 화랑문화권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논증이 없어 근거가 취약하다.

이도흠(1994)은 이라크 풍속화에 인간이 병들을 여자 역신이 남자인간을 범하는 것으로 묘사한 그림이 있음을 근거로 처용이 이슬람인이고 역신 구축은 의술로써 병을 고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처용설화를 당대 역사적 현실과 무불습합적 세계관 - 풍류 만다라 - 으로 환원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림을 근거로 이슬람의 그러한 관념이 전파되었다고 이해하기보다 신라 자체에도 그러한 관념과 민속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김학성(1995)은 처용전승의 역사문화적 기반이 화랑문화권에서 생성된 것임을 세밀하게 논증하고 이에 따라 처용가를 화랑의 인격적 덕망이 배어있는 노래로 이해했으나 논증 자료가 아직 탄탄하다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유해춘(1995)은 처용랑 망해사조를 이분화하여 처용과 직접 관련된 부분을 처용설화, 산신들의 춤과 노래부분을 산신설화라 하고 처용가는 혼사장에 극복의 노래로 보았다. 그리고 설화의 이해는 이우성 등의 견해를 수용하여 역사적 현실로 환원하여 이해하는 시각을 보였다. 그런데 처용가를 고려처용가의 위협적 표현을 근거로 관용을 넘어선 위협적이고 역설적인 언술로 본 것은 후대에 변화된 자료를 근거로 전대의 자료 성격을 역추적하는 것이어서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 보인다. 홍기삼(1997)은 처용 텍스트의 분석에 있어서 전체문맥으로 보기, 잘게 쪼개어 자세히 읽기, 기호의 연쇄를 해독하기 등 분리주의적 시각의 텍스트 읽기를 일면 보이면서도 그러한 분석결과의 의미 해독은 당대의 역

사현실에서 근거를 찾는 방식을 택하여 환원주의적 시각도 동시에 보여주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어 설화분석에 진일보한 면을 보였다. 이에 따른 결론도 처용전승이 역사적 사실과 설화적 사실이 혼성적으로 존재한다고 이해했는데 그 혼성적으로 존재하는 양상이 구체화되지 않아 막연한 감을 떨칠 수 없어 아쉽다.

정운채(1998)는 고려처용가가 신라의 처용전승(처용랑 망해사조)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나를 텍스트를 통한 텍스트 해석이라는 독특한 방법과 시각으로 이해하고자 했는데 이를 통해 고려처용가의 벽사진경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역추적해 놓았다. 이로써 벽사진경의 원리는 잘 드러났으나 그 이외의 요인에 의한 텍스트 재해석은 고려하지 않아 일면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한계점을 보였다. 유경환(1998)은 처용전승에서 용의 상징적 의미와 기능을 모색하면서 용왕승배사상으로 환원하여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에 따라 처용가를 영웅적 처용이 신라말기에 만연된 음란문화를 왕(王)마귀문화로 보고 그 악신의 문화를 퇴치하기 위해 사투 끝에 승리한 칼노래로 보았다. 논거의 뒷받침 없이 다분히 자의적 해석을 가해 논리적 비약을 초래한 예에 해당한다.

윤성현(1998)은 고려처용가를 통해 신라 처용의 정체와 본질을 밝히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제아래 무속적 관점으로 모든 의미를 환원하여 처용전승을 이해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처용은 나라일을 담당하는 국무(國巫)이고, 역신은 질병을 가져오는 범무(凡巫)고, 처용아내는 이들의 대립 갈등을 제공한 여무(女巫)로 보았다. 그러나 텍스트의 문맥에서 처용의 아내와 역신을 무당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전혀 없어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다. 정지원(2003)은 구성주의의 원리에 바탕하여 처용가의 교육내용을 고안한 것으로, 처용전승이 한국의 고대종교가 토착신앙과 외래신앙 즉 무불(巫佛) 습합의 특징을 보인다는 관점아래 신라인의 이러한 복합혼성적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라 해석했다. 그러나 처용전승의 생성에 참여한 토착신앙이 무속인지 화랑의 선도(仙道)인지에 대한 천착 없이 무조건 무속으로 보는 관점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분리주의 중심의 연구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방법의 시작은 이미 정병욱(1972)에서 발견되지만 그것은 종합편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여중동(1975)이 고려처용노래를 연극하는 노래 또는 극가(劇歌:연극의 노래)로 본 데서 출발한다. 그는 신라 처용가의 경우 사건을 시의 형식에 담아 전개했으니 분명 서사시(epic)라 하고, 고려 처용가는 처용의 마력을 빌어 몽고의 재난을 물리치고자 하는, 고려 고종 때 강화도 궁중내전에서 상연된 극가라 주장했다. 그러나 신라처용가를 사건을 서술했다하여 서사시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 서술시(narrative), 더 정확하게는 서술 서정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고려처용가도 화행(話行)짜임의 원리가 행동 언어로 일관되는 연극노래로 보기에 는 무리가 따르며 역시 서술서정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요에서 유희요(遊戱謠)를 연극노래라 할 수 없듯이 처용희 혹은 처용무로 연행된 고려처용가를 연극노래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미경(1980)은 처용전승과 관련된 자료를 치밀하게 따져 처용이 어떻게 신격화 될 수 있었는가를 논리화하고 그러나 처용은 '예연자적 예술가'였으며 비극적 인식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도취의 신'이지만 신화는 아니라 하면서 처용전승에서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예술성(영원한 생명력)의 본질을 밝히는 섬세한 작업을 했다. 역사적 자료를 다루면서도 역사를 넘어서는 예술의 영원성을 밝혀내려 했다는 점에서 분리주의적 시각의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홍경표(1981)는 처용가가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구조화된 문학 작품이란 전제에서 텍스트에 내재하는 심리현상을 포착하고 언어적 변용에 의한 처용의 인간화와 예술화 과정을 읽어냄으로써 분리주의적 시각을 보인다. 그러나 동해용을 악마적 이미지리로 파악하고 그 아들 처용도 본질적으로 악마적 표상으로 보는 등 분리주의적 시각의 한계를 드러낸 점에서 문제를 보인다. 이어령(1988)은 처용전승을 처용랑·망해사조의 전체문맥의 언술구조에서 파악하고 설화의 각 단위를 형성하는 요소들의 이항대립의 음운론적 구조와 텍스트의 반복·중첩구조를 밝혀 일연의 역사기술이 동양의 우주적 순환구조의 거대한 반영이라 보았다. 이 작업은 처용전승의 다양한 층위의 분석과 다기호적 의미를 치

밀하게 파악해냄으로써 기호론적 이해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럼에도 모든 해답을 텍스트 내의 기호적 언술에서 찾아냄으로써 현강왕의 놀이/행차의 의미가 단순히 기호론적으로 파악될 수 없는 문화문맥을 지니고 있음에도 당대의 어떤 문화권과 결부되는지, 그 역사·문화적 함의는 무엇인지 관심이 없으며, 북악신이 남산신과 동격의 신라 국가수호신임에도 둘 사이가 반대지향을 갖는 신격으로 파악하고 있어 기호론적 시각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최재남(1992)은 처용가의 같은 구절을 두고 상반된 해독이 가능한 것은 언어적 차이라 할 수도 있지만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는 견지에서 신라처용가는 적극적 관용의 자세임에 비해 고려처용가는 위협의 언사가 중심이 된다고 하면서 처용의 적극적 화해나 관용의 태도를 선자관비(善自寬譬)의 미학이라 규정했다. 이러한 판단이나 미학적 규정은 텍스트외적 사실보다 텍스트 내적 문맥이나 어조에 기준점을 둔 것이어서 역사적 실감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최철(1995)은 고려처용가의 노래 짜임을 살피고 표현특징으로 화자의 목소리에 처용, 제주(祭主), 역신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어가는 극적 표현 방식을 들었다. 이를 통해 원래 처용가가 지닌 주술적 성격에 극적인 성격이 가미되는 방향으로 변이된 것으로 보았는데, 신라처용가가 주술적 성격을 어떻게 원래부터 지니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거가 너무 막약한 것이 문제다.

최혜실(1995)은 처용텍스트를 발신자-전언-수신자의 담화구조로 분석하고 수신자(독자)를 중시하는 수용이론의 관점에서 처용가가 어떻게 해석되었나를 독특하게 추적했다. 즉 처용가의 최초의 독자를 현장에 있었던 역신으로 보고, 그 뒤 신라인들의 해석과 일연의 해석 그리고 고려처용가 작가의 해석과 현대의 독자들의 해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용과 그 해석양상을 살폈다. 독자의 수용미학을 짚어내었다는 점에서 흥미를 주나 처용에 얽힌 실질적 문제들(처용과 역신의 정체 등)을 푸는 데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계다. 신은경(1997)은 처용전승을 라깁이 제시한 주체 형성 모델의 분석틀을 따라 처용이라는 개체가 자아의식을 가진 주체로 서기까지의 과정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분석해내었다. 이러한 작업으로 문학적 연설 혹은 그 틈을 통해 내비치는 처용의 내면세계 곧 무의식의 흐름과 의미작용을 읽어내었다는 점은 의의를 가지나 처용을 아버지인 동해용의 욕망의 대리인으로 보는 것이나, 역신에게 아내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빼앗아 가도록 유도하거나 빼앗아간 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 묵인함으로써 내어준 것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과 함께 처용의 인격적 덕망(동양적 관용)과는 거리가 먼 서구형 인간에서나 가능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서구이론의 도입에서 오는 무리와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하겠다.

이완형(1999)은 기록자 일연의 기술태도를 중시한다는 면에서 처용전승의 문면에 직립하는 해석적 입장을 보였는데, 처용의 나들이와 역신과의 대결 및 관용에 대하여는 처용이 외유할 때 인간들처럼 향유했지만 집에 와 아내의 간음현장을 보고 신의 입장으로 돌아와 신의 신에 대한 관용을 베풀으로써 언제라도 본분으로 돌아가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음을 체험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이해했다. 그리하여 처용가는 왕과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 체험적 사건을 모체로 신의 의지를 계시한 '계시요'로 보았다. 그러나 처용과 현강왕의 나들이를 향락으로 이해한 것이나 처용가의 마지막 두 구를 처용 자신에 대한 체벌이며 역신에 대한 관용이고 나라에 대한 체념이라 해석한 것은 자신이 계시요(신의 메시지 혹은 意中)로 본 것과 논리상 맞지 않고 또 계시요로 본 것 자체도 원전이 지시하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이승남(2003)은 처용가를 관련문맥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그 시적 정서의 본질을 밝힌다는 분리주의 시각으로 접근했는데 그 결과로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나 존재했을 필부필부(匹夫匹婦)들의 산물이라 규정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신라 현강왕대라는 특정시간과 개운포라는 특정공간이 설정되었는지, 필부필부의 노래가 왜 문제가 되고 배경설화까지 낳게 되었는지, 더욱이 필부필부의 노래가 하필 국가의 흥망과 관련한 기이편에 수록되어야 했는지 이러한 의문에 대한 어떤 해결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연구사 검토에서 드러났듯이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환원주의 혹은 분리주의 시각의 어느 일방으로 편향된 경우가 대부분이었

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환원주의로의 편향은 문학 텍스트가 당대의 역사나 사회, 사상 혹은 관념을 증언해주는 문서 정도로 보고 문학의 자율적 안정성에 의한 상상력의 표현마저도 그러한 것들로 환원해서 이해하는 태도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온당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분리주의로의 편향도 문학의 자율성 보편성 영원성의 가치를 탐구해낸다는 명목으로 하나의 기념물 혹은 골동품을 다루듯 한다면 문학이 사회·문화적 실체인 한 그것이 생성된 현실적 맥락에서의 생생한 의미를 탐구해 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전이 지시하는 정확한 의미와 거리가 먼 자의적 해석은 처용 텍스트의 이해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5. 綜合的 解釋

文學作品을 生物에 비유하여 유기체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 경우 文學이 生命이 있는 生物에 과연 비유할 수 있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상관관계를 가진 덩어리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견해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의 덩어리가 각각의 特性을 지니면서도 統一된 유기체로서의 特質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느냐가 文學作品의 우열을 구분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處容歌의 綜合的 解釋은 이 문학작품의 유기체설과는 다소의 거리가 있으나, 하나의 說話나 作品을 두고 다각적으로 分析 檢討하여 하나의 공통된, 그리고 통일된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일찍이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이루어진 처용설화에 대한 심포지움(1972)은 종합적 연구로서 값진 성과라 아니 할 수 없다. 여기서 정병욱은 처용 텍스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일체의 역사적 민속학적 종교적 사실과의 관련을 배제하고 문학 자체로만 보아, 처용가는 시적 긴장도 은유도 결여된 조잡한 시가로 10구체 사뇌가라는 중앙 귀족문학과 대립되는 지방문학으로 희극미를 보여준다고

그 문학적 성격을 규명했다. 문학 텍스트가 역사-문화적 실체인 한 일체의 사회-문화적 관련을 배제하고 분리주의의 시각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작품을 당대에 살아 있는 텍스트로 의미화 하는 데는 절대적 결핍돌이 되지만 문학성을 규명하는 데는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8구체의 처용가를 10구체의 사녀가와는 다른 조야한 면이 있다고 밝힌 점은 민요격 향가로서의 처용가의 성격 규명에 일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8구체인 <모죽지랑가>는 사녀격의 축약형이어서 문학성이 결여된 작품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처용가는 4구체 민요격의 2련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녀가의 세련성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강신항은 어학적인 면에서 계림유사에 보이는 '용왕칭(龍曰稱: 용을 칭이라 했다)'을 근거로 '용=처용=칭'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해하고 또한 '차차용(次次雄)=차충(慈充)=처용=중희' 관계로 보면서 이것이 민속의 '제용'과도 관련 있는 것이라 주장했으나, 토론에서 계림유사의 칭(稱)은 미(彌: 미르=용의 고어)의 오자(誤字)일 가능성이 크고 처용과 중희 관계에서 무기음과 유기음의 구분을 무시해도 좋은 지가 의문으로 제기되었다. 이두현은 처용 형상이 귀면(鬼面: 귀신의 모습)인 것을 근거로 원초 인류가 가졌던 벽사가면(辟邪假面)의 설명설화로 이해했고, 원래 잡귀 역신을 쫓는 공포의 모습이었지만 이것이 종교화되면서 공포와 진노를 제거하고 시적(詩的)으로 미화시켜 유덕(有德)하신 처용으로, 그리고 벽사진경(辟邪進慶)의 처용설화를 형성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처용설화 원전 문맥에는 처용 사건이 먼저이고 처용 형상이나 가면이 그 뒤에 생긴 민속이어서 선후관계가 거꾸로 된 점이 문제가 된다. 김열규는 민속학적 입장에서 해석하면서 처용진승은 신성(神聖)전설이고 역신 퇴치 기능을 가진 문신(門神)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이며, 처용은 역신을 퇴치하는 의무주술사(醫巫呪術師)이고 처용가는 감염법칙의 주술원리가 작용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 역시 처용가의 노래 자체에서 역신 퇴치의 원리를 찾는 것은 무리며 처용의 무속과의 관련(문신으로 되는 등)은 후대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다. 이용범은 처용을 울산만에 상륙한 이슬람 상인으로 추정하였다.

個人的으론 處容說話의 綜合的 解釋을 試圖한 이는 李相斐¹⁸⁾·嚴元大¹⁹⁾·薛盛璟²⁰⁾ 等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論題에 내세운 綜合的 解釋에는 못미친 느낌이다.

의욕은 살만하면서도 아직도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實情이 우리 학문의 풍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 薛盛璟만은 매우 다양하게 고찰한 결과가 드러나 있다. 곧, 歷史的·심층심리학적·文學的 側面에서 이를 綜合 분석함으로써 處容說話의 複合的 意味를 추출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努力에도 불구하고 어떤 決定的 學說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結論的으로 말하여 文學作品(說話를 包含한)의 研究態度는 다양한 方法이었고, 또 다양한 解釋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를 綜合評價하여 하나의 完結된 學說이나 結論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이 處容說話의 심층적 研究도 그러한 方法으로써만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그 作品이나 說話가 지니는 複合的 意味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여진다. 處容說話의 研究方向도 결국 이점을 놓쳐서는 곤란하다.

6. 其 他

앞에서 檢討한 다섯가지 이외에도 이 處容說話에 대한 解釋을 시도한 것이 여러 분야에 걸쳐 나타나 있다. 그것은 또 그들대로의 타당한 論理的 뒷받침에 의해 이루어진 역작들임에 틀림없다. 여기에서는 위의 다섯 項目 이외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몇 가지 側面의 論文들을 檢討해 보려 한다.

그 첫번째가 이 處容說話를 하나의 歷史的 사실로 파악하여 이를 說明하려 한 論文들이다. 李佑成과 李龍範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이 說話를 철저히 현실적으로 分析하고 있다. 李佑成은 中央政權과 地方豪族

18) 李相斐(1974), 「處容說話의 綜合的 考察」, 『國語國文學 研究』創刊號, 圓光大.

19) 嚴元大(1976), 前掲書

20) 薛盛璟(1983), 「處容의 歌舞行爲가 지닌 意味層位」, 『東方學志』第36~37合輯

을 상징하는 매개물로 내용을 파악하고 中央政權이 군림했던 경주지역의 王權, 또는 그 척신이 그 변경지역에 해당하는 울산지방의 호족을 포섭한 내용을 실화한 것이라 보았다. 處容 아내의 범접도 中央貴族의 행위로, 그 결과 處容은 그들을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²¹⁾

또 李龍範은 處容을 자연인 아랍상인이라 主張했다.²²⁾ 그러나 이러한 歷史的 사실론의 處容說話에 대한 解釋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원래 歷史란 作品 解釋의 보조 장치로 利用될 뿐 아니라 時代的 背景을 뒷받침하는데 불과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심오한 내용의 노래와 說話가 얽힌 이 處容說話를 단순한 상징이나 歷史的 自然人으로 보기에는 論理的 根據가 빈약하다 하겠다.

다음으로는 處容說話를 精神分析學的으로 접근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徐廷範이나 金光日에 의해 언급된 것들이다. 徐廷範은 處容歌 3·4구의 '자리'를 취침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現實的인 아내의 外道가 아니라 꿈속의 場面이라는 것이다.²³⁾

精神分析學에서 꿈의 解釋이 人間心理 파악에 주요한 자료가 됨은 잘 알려진 일이거니와 이는 너무 건강부회한 論理的 적용으로 보인다. 金光日도 이 說話를 Oedipus Complex로 풀었으나²⁴⁾ 설득력이 貧弱하다.

세번째로 處容說話를 社會學的 觀點에서 分析한 論文들이다. 이에 관한 것으로는 이미 趙東一의 소론을 앞에서 檢討했거니와 崔聖鎬나 朴魯堉이 이에 해당된다. 崔聖鎬는 李佑成과 같은 根據로 處容을 변방족의 하나로 보고 王의 巡撫로 處容說話를 풀이하였다.²⁵⁾ 朴魯堉은 이 說話를 社會相을 반영한 諷刺로 보았다. 둘 다 흥미있는 관점에서 論議된 것으로, 앞으로 더욱 이 觀點의 研究가 深化되리라 본다. 이는 문학의

21) 李佑成(1969), 「三國遺事所載 處容說話의 分析」, 『金載元博士 回甲紀念論叢』, 乙酉文化史.

22) 李龍範(1969), 前掲書

23) 徐廷範, 「古典文學에 대한 精神分析學的 試論」, 『現代文學』 73號.

24) 金光日(1972), 「處容說話의 綜合的 考察」, 『大東文化研究』別集 I, 成均館大.

25) 崔聖鎬(1979), 「處容歌新譯」, 『國語國文學』 8號.

힘도 重要하나 歷史나 社會學쪽과의 유대가 필요하며 인접학문의 도움을 받아 더욱 發展할 수 있는 계기가 왔으면 한다.

Ⅲ. 結 論

이상에서 現在까지 發表된 處容說話 및 處容歌에 對한 論文을 수합하여 이를 몇 개 項目으로 分類하여 整理해 보았다. 筆者의 能力의 限界로 말미암아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으나, 거의 이 方面의 주요한 업적들을 망라하려고 努力하였다. 그러나 각 論文에 나타난 先學들의 견해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였을까 염려된다. 원래 文學作品的 解釋이란 다양하기 때문에 筆者들의 完곡한 主張과 견해들을 고르는 일도 그리 쉬운 作業은 아니었다.

어쨌든, 우리 民族傳統文化의 가장 모두에 해당하는 新羅의 處容歌는 處容自體가 승려이든, 무당이든, 地方 豪族이든, 외래인이든 간에 우리의 精神史的 맥락 속에서 길이 記憶되고 우리 先人の 情緒를 오늘에까지 이어 오는데 커다란 役割을 하고 있음은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古代社會라 할 수 있는 新羅의 社會·歷史·言語들이 더욱 완벽하게 研究되고 學問間的 상호보완이 이루어질 때 이 處容歌의 原來的 모습은 再生 되리라 생각된다.

K C I

<Abstract>

A Historical Study of Choyong's Narration and Song

kim kyung-soo *

The thesis is organized into the several categories with my own comments and opinions while comprising a lot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up to the present time on Choyong's Tale and Song. It was impossible to compile all the related materials because of my limited academic ability, but approximately 330 academic papers in such fields as Korean language study, folklore, literature, legendary literature, and history, were checked over and their essential parts were extracted for my paper.

Usually different readers interpret a literary work differently and this gave me a hard time picking up the ideas and opinions connoted in their academic writings on Choyong.

The Song of Choyong of the ancient Silla Kingdom, which I think is the essenc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has been keeping its life in the moral and spiritual history of Korea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linking the sentiments of Korean ancestors to their descendants today regardless of Choyong's social position-- whether Choyong was a monk, a shaman, a lord of manor in the countryside, an alien from abroad, or a member of the Flower of Youth in Silla Dynasty. The original color of Choyong Song will be revealed more clearly with more study about the language, history, and society of Silla, one of the Korean ancient Kingdoms.

key words : Choyongga(Song), Choyong Narration, Korean Language Study, Folklore, Tales, History

논문접수일 2005년 9월 15일

심사완료일 2005년 10월 25일

*Chuang-ang University, Professor